국보관

판조십이신장입상

국보

십이신장은 약사여래를 수호하는 존재입니다. 11 세기에 만들어졌으며 판조라고 불리는 부조 조각의 걸작으로 여겨지는 이 조각상들은 원래 동금당(東金堂)에 모셔져 있었습니다. 이 상들은 본존이자, 의술을 관장하는 부처인 약사여래의 대좌 각 면에 약사여래를 수호하기 위해 장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십이신장은 사납고 용맹스러우며 성내는 듯한 표정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이 십이신장상은 유머러스한 표정으로 유명하며 또한, 두께가 고작 3cm 에 불과한 노송나무판을 사용해 놀라운 입체감을 구현한 작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각 상의 자세는 매우 다양해서 가부키 배우를 연상시키는 과장된 몸짓을 취한 것도 있는 한편, 불상처럼 정면을 향한 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.

십이신장의 형태는 고정된 것이 없고 각 상의 이름도 후세에 붙여진 것이라서 원래 어떤 상으로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. 이 전시에서는 몸의 자세와 동작, 얼굴의 표정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상의 배치를 결정하여 약사여래상의 대좌 정면과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던 원래의 모습을 재현하려 시도했습니다.